

# A 사립고 기간제 교사 채용 운동부 운영 전반 의혹 제기

전교조 전북지부, 교육청에 감사·진상규명 촉구  
“교과 상치에 해당하는 수업 편성 통해 자리 확보  
채용 과정 공정성 문제·운동부 운영 위법 소지”

도내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과 운동부 운영 전반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철저한 감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학교에서 교과 상치에 해당하는 수업 편성을 통해 기간제 교사 자리를 확보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운동부 운영의 위법 소지가 동시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올해 체육 수업 시수가 감소했음에도 체육 교과와 논술 수업을 결합해 정원 내 기간제 교사 자리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교원인사비에 확인한 결과, 체육과 논술 교과 간 연계성은 인정되지 않았고 교과 상치에 해당해 감사 지적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1차 공고에서 수업 실연까지 진행된 뒤 ‘적격자 없음’으로 채용이

무산됐으나, 이후 2차 재공고 과정에서 1차 탈락자가 최종 선발됐다는 것이다. 또한 채용 과정에 관리자가 직접 참여했고, 해당 관리자와 최종 선발자 간 동일 체육단체 소속이라는 이해관계가 확인됐음에도 기피나 회피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교조는 주장했다.

특히 최종 선발된 지원자는 2025년 해당 학교 운동부 강사로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지도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운동부 강사로 근무하며 강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에는 동일 재단 내 다른 학교에서 근무 당시 방과후 수업과 대학원 수업 시간이 겹쳐 강사비가 환수된 전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운동부 강사와 지도자 시절부터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고공이 이어졌고, 그 흐름 속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까지 진행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운동부 운영 과정에서의 재정 문제

도 도마에 올랐다. 학부모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학교회계가 아닌 외부 계좌로 납부하도록 안내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이는 정기·정액 방식의 불법 찬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청의 조치는 계좌 해지 안내 수준에 그쳤고, 조성된 금액의 규모와 사용 내역, 관리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현지 시정 조치로 시안이 종결됐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 장학사가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익정보자 보호 원칙이 훼손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사안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리자 개인과 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반복된 결과”라며 기자회견 직후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에 특정감사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원 내 기간제 교사 배정과 채용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사적직접 지도자 근무와 강사비 지급의 적법성 규명 △운동부 학부모 부담금 수납의 불법 여부 및 책임 규명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공익정보자 보호 여부 조사 등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오상근 기자



10일 전북대학교 서울사무소에서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조길주 토마토시스템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AI·데이터 기반 대학정보시스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이 열렸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 대학정보시스템 고도화·AI 캠퍼스 전환 ‘속도’

전북대, 토마토시스템과 ‘맞선’  
AI·데이터 기반 혁신모델 구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토마토시스템(대표이사 조길주)과 손잡고 대학정보시스템 고도화와 AI 캠퍼스 전환에 속도를 낸다.

전북대는 10일 전북대학교 서울사무소에서 양오봉 총장과 조길주 토마토시스템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AI·데이터 기반 대학정보시스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X 시대를 맞아 대학 정보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양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합해 미래형

대학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학정보시스템 기술 및 운영 경험 공유 △차세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동 기획 △AI·데이터 기반 대학 행정 혁신 △교육·연구·실증 사업 발굴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을 넘어, 전북대의 행정 노후와 토마토시스템의 기술력을 접목해 국내외 대학에 보급·판매할 수 있는 ‘표준화된 대학 정보화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이를 해외 시장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대학정보시스템 고도화는 교육과 연구, 행정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

번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AI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대학으로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조길주 토마토시스템 대표이사는 “전북대와 함께 대학정보시스템 구축 분야에 협력하게 되어 뜻깊다”며 “자사가 보유한 AI·데이터 기반 솔루션과 대학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도적인 정보화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캠퍼스 구축에 속도를 내고, 데이터 중심 행정혁신을 본격화해 거점국립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올 한해 중등교육 핵심과제 공유

전북교육청, 2026학년도 기본계획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창조 미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340개 중·고등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중등교육과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단순한 지침 전달의 자리를 넘어 교육청과 학교 현장이 긴

밀하게 소통하며 중등교육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설명회는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 △성장상을 지원하는 장학 체계 △학생의 꿈을 구체화하는 진로·진학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특히 업무담당 장학관들이 직접 분야별 핵심 과제를 상세히 안내하며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정책 구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교원의 서·논술형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설계 연수와 문항 개발 자료를 제공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평가 사례 공유를 통해 교원의 평가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학생 성공을 설계하다’… AI 시대 교육혁신 성과 공유

호원대,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포럼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10일 ‘학생 성공을 설계하다 : AI 시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라는 주제로 ‘2025 호원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총장 및 주요 보직자, 학부(과)장,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별 세션에서는 목포해양대학교 장선영 교수의 ‘AI 시대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초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대학혁신지원사업 본부장의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추진경과를 보고하며 사업의 흐름을 공유했다.

우수사례 발표 세션에서는 학생과



대학의 혁신 성과가 다채롭게 소개됐다. 학생 발표로는 △특성화 분야 인재 양성 프로젝트 융합 공영 제작 사례(공연미디어학부 김관민) △학생의 시선으로 있다. 호원의 내일을 짓다(학생 모니터링단 대표 간호화과 나가타)가 주목을 받았다. 이어 대학 측의 우수사례로 △학생 중심 진로 설계 지원 프로젝트 ‘은 뱀’(교무·혁신처) △HU-Teaching 인증제를 통한 지속 가능

한 강의 품질 혁신(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 중심 진로 설계 지원 프로젝트 ‘Career Plan 100’(진로·취업지원실) △미래대응형 교양 교과-비교과 연계(Co-커리큘럼) 프로그램 운영 성과(기초교양교육원) △PLSA-Share 기반 성과 관리 모형 체계 개발(IR센터)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강희성 총장은 “올해는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시작되는 첫해로, 대학이 앞으로의 교육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그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교육 혁신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공유함으로써 강점과 보완점을 점검하고, 데이터·AI 기반의 학생 성공 지원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신=김만호기자

## 학생건강 체계적 관리, 학교현장 지원 강화

전북교육청, 2026학년도 학생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설명회  
평생건강기반 보건교육 내실화·건강취약학생 보호 등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11일 이틀간 전주병원의전당 유랑검률에서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업무담당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학생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모든 학생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라는 전북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 학생건강증진교육 추진 방향과 학교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분청 김은희 학교보건담당 장학관이 학생 건강지표 결과 분석과 향후 관리 방안과 학생 건강 현황을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안내한다. 이어 2026학년도 학생건강증진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과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도 진행된다.

전북교육청은 △평생건강 기반 보건

교육 내실화 △자기주도적 건강생활 실천 능력 함양 △질병 조기 발견 및 건강취약학생 보호를 2026학년도 학생건강증진교육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즉시 적용해야 할 흡연 및 마약류 예방교육, 응급처치교육 등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건강한 체중·바른 체형 유지, 구강보건 관리 강화, 건강요주의 학생 체계적 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현장의 이해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학생건강증진 수업 패스 티벌 활성화, 금연 집중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 에듀테크를 활용한 마약류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역별 보건교육 컨설팅 지원단 조직·운영 등을 통해 학생건강을 지키는 학교 현장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설 연휴 학교 등 주차장 개방

기관 32곳 포함 총 733곳  
지역 주민 등에 무료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설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차장이 개방되는 교육기관은 공·사립학교 701곳을 포함한 분청과 14개 시·군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총 733곳이다.

연휴 기간 학교 등 교육기관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전북교육청 누리집(<http://www.je.go.kr>) 공지사항에서 주차장 위치와 개방 시간을 확인하면 된다.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하고, 학교 출입 시 안전사고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설 연휴에도 귀성객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한다”며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인 만큼 주차장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10일 장수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장수 관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6 장수교육계획 설명회’가 열렸다.

## ‘학력신장·책임교육으로 함께 성장’

장수교육지원청, 2026 장수교육계획 설명회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근)은 10일, 장수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장수 관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6 장수교육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중심으로 한 장수교육의 주요 방향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교육, 그리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동행하며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마련됐다.

2026 장수교육계획은 기초학력부터 심화학습까지 학생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학력신장과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책임교육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배움의 속도는 달라도 배움의 기회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제공한다는 원칙 아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기자

이날 설명회에서 추영근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6 장수교육은 단기간의 성과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이라며 “학교는 책임 있게 가르치고, 가정과 지역사회는 함께 응원하는 동행의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성적 중심을 넘어 아이의 삶과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교육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며 “학교와 가정이 함께 책임지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신뢰가 생겼다”고 말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실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키우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끝까지 책임지는 장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